

광주 장애인 편의시설 늘었지만 이용은 더 어려워졌다

7711곳 실태조사... 단순 편의시설 갖췄을 뿐 법정기준엔 맞지 않아 5개 지자체 “출입구 경사로·주차구역·화장실 등 후속조치 적극 노력”

광주지역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증가했지만 적정 설치율(법적 기준에 따른 설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준공을 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시 5개 지자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 중 불편을 겪거나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아파트, 식당, 보육시설, 우체국, 복지회관 등 총 25곳의 미흡시설에 대해 11월 현장점검을 거쳐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에게 시정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대 10개월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실시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건물 출입구에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 총 26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살폈다.

지난해 광주 지역 편의시설 771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단순 설치 비율)은 89.6%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에 비해 7.4%p 증가했고 전국 평균(89.2%)보다도 높은 수치다.

하지만 광주지역 장애인들은 단순 편의시설을 갖췄지만 했을 뿐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 지역 적정 설치율은 78.5%로 2018년

(80.2%)보다 오히려 1.7%p 감소했다. 적정 설치율이 줄어든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0.6%p)과 광주가 유일하다.

또한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점자블록), 기타시설(접수대·작업대), 비치용품 등 6개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매개시설 적정 설치율이 82.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안내시설 적정 설치율은 59.4%에 불과했다.

주출입구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대부분 설치됐지만, 의무대상 건물의 40% 이상이 점자블록이나 경보 및 피난설비는 갖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치용품 적정 설치율 역시 59.8%에 불과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입문안내책자 등을 받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남구에 위치한 한 우체국 대피소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가 관리하는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역시 4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초록 동구, 주민들에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인도 주변 수목 4000그루 식재

광주시 동구가 주민에게 친환경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 주변에 수목 4000그루를 식었다.

동구는 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과 가로변 녹지를 제공하기 위한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숲 조성 사업의 하나로 보행자 도로변 녹지공간에 관목류 등 다양한 식물을 심어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착수했다.

앞서 동구는 푸른길공원을 시작으로 계림동 두산위브 아파트, 계림초등학교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고사목을 제거했다.

또 홍가시나무와 블루엔젤 등 10종 4000그루, 털머위 등 15종 2399그루를 심고 화산석 4.6t, 안내판 2개소 등을 설치했다.

광주도심 허파라 불리는 푸른길공원 일대와 연결된 녹지 축을 연결, 미세먼지와 폭염을 저감하고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생활권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동구는 특히 황금사철 등 4종의 상록수목과 여름철 하얀 송이의 꽃을 피우는 목수국을 심어 풍성한 가로환경을 형성, 쾌적한 보행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택 동구청장은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사업(계림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상에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상무초 학생들이 “환경보호 동참해요” 광주시 서구 상무초 학생들이 최근 개최한 아름다운 상무나눔 나눔장터 판매 수익금 전액 169만1650원을 환경보호 활동 명목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남구, 취약계층 자녀·장애인 여가활동 돕는다

내년 1인 월10~11만원 수강료 지원

광주시 남구가 취약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의 여가 활동 지원에 나섰다.

남구는 “내년부터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레저와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1인당 10~11만원 이내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취약계층 가정의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5~69세 등록장애인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 법정 한부모 가구 자녀가 대상이다. 취약계층 유·청소년 865명, 등록장애인 107명이 지원 받게 된다.

스포츠 강좌 바우처 희망자는 8일부터 28일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남구청 7층 교육체육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선정 기준 조건 등을 검토한 뒤 12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스포츠 강좌 바우처를 통해 태권도와 양궁, 복싱, 댄싱 등 분인이 희망하는 운동 종목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북구,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광주시 북구는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평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역별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참여율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참여자 수와 온실가스 감축

량 등 제도 운영 전반 실적을 검토해 이뤄졌다.

북구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과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으며 SNS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 참여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우수 아파트 조명기기 고효율 LED 교체 사업'은 제도 가입 모범 주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함께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시킨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북구는 지난 9월 기준 전체 20만 2744세대 중 '58.9%'에 해당하는 11만 9337세대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가입해 활용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미래 세대가 자연과 환경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며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중립 실천에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필요성과 장점을 적극 알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내년 광주퀴어문화축제 개최 본격 준비

준비모임 참여자 모집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025년 퀴어(성소수자)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인권지기 활짝과 광주 성소수자 부모모임 등은 '광주퀴어문화축제 재준비모임(모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자는 올해 말 소규모 실내 행사와 오는 2025년 광주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표로 기획·홍보·디자인·회계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모임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고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한다' 등의 평등 규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올해 서울, 대전, 대구, 제주, 춘천,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지만 광주에서는 지난 2018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19년 2회를 마지막으로 5년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